

2022년 1-2

KIET 경제산업동향

2022. 1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 - AFTER TIMES [현대경제연구원 (2022.1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중국 4분기 성장률 4.0%, 2021년 전체 8.1% 성장

- 미국은 12월 실물지표 감소세와 체감지표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세계은행이 2022년도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하여 3.7%로 0.5%p 하향
- 일본과 유로존은 11월 실물지표들이 증가세를 보인 모습이나, 올 들어 일본과 유로존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경기침체 가능성 우려도 고조
- 중국은 12월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4.0%로 3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연간 전체 성장률은 8.1% 기록
- 달러화는 연준의 조기 긴축 전망에도 연초에 약세를 보인 이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와 함께 연준의 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강세
- 유가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과 카자흐스탄의 시위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 UAE-예멘 간의 갈등 고조 등 우려로 상승 지속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1.1% 성장, 11월 전산업생산 3.2% 증가

- 4분기 실질GDP는 설비투자의 감소 지속에도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기비 1.1% 성장, 연간 전체 4.0% 성장
 - 11월 전산업생산이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증가세로 전월비 3.2% 증가하고, 소매판매가 1.9% 감소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10.9%나 증가

□ 금 융 : 12월 기업대출·가계대출 감소 전환, 1월 중순(1.11~1.25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상승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규모 역시 감소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이 상당폭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7개월 만에 감소

- 국고채(3년) 금리는 미 국채금리 상승세와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정부의 추경 예산 추진, 연준의 FOMC 회의 경계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 지속
-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약세와 함께 상승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와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6.2% 증가
 - 제조업ICT 생산은 증가세가 축소, 중공업은 확대, 경공업은 증가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등이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5.3%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8.3% 증가, 전월비 기준 3.5% 증가

□ 고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9% 증가

- 12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만에 상승(2.0% → 2.9%, 2014.3월 이후 최고치)

□ 수출입 : 12월 수출 +18.3%, 수입 +37.1%, 무역수지 -4.5억 달러

-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3%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이 37.1% 증가한 61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상당수의 주력 품목들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국·미국·EU·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2개월 연속 600억 달러를 돌파

1. 해외경제

□ 미국 : 12월 실물지표 감소 전환, 세계은행 美 성장률 전망치 하향

○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하고, 체감지표들도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불안정한 모습. 세계은행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경제정책 지원 약화 등의 영향에 따라 3.7%로 하향

- 산업생산은 자동차·부품(-1.3%) 등에서 감소 전환함에 따라 제조업 생산(-0.3%)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기준 3개월 만에 감소하고, 소매판매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감소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신규수주와 생산이 하락하고, 고용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등에서 2020.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월비 상승 전환
-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는 전월보다 축소(+19.9만명)된 반면, 실업률이 2020.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세
- 세계은행은 올해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재정·통화정책 지원 약화와 공급망 혼란 지속, 인플레이션 심화 등에 따라 3.7%로 0.5%p 하향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3.4	-	6.7 (12.2)	2.0 (4.9)	-				
산업생산 (IT생산)	-7.2 (7.1)	5.5 (10.3)	1.6 (3.3)	0.9 (-1.1)	1.0 (0.3)	-1.0 (0.4)	1.2 (-0.3)	0.7 (0.6)	-0.1 (0.3)
내구재수주	-13.6	-	3.0	2.8	-	-0.4	0.1	2.5	-
소매판매	0.3	19.3	6.5	-0.5	2.1	0.7	1.8	0.2	-1.9
소비자물가	1.2	4.7	2.0	1.6	2.0	0.4	0.9	0.8	0.5
실업률(%)	8.1	5.4	5.9	5.1	4.2	4.8	4.6	4.2	3.9
무역수지(10억US\$)	-676.7	-	-207.1	-225.0	-	-81.4	-67.2	-80.2	-
ISM 제조업지수 ¹⁾	52.5	60.7	60.8	60.2	60.2	61.1	60.8	61.1	58.7
소비자신뢰지수 ²⁾	100.9	112.0	62.3	62.6	65.9	109.8	111.6	111.9	115.8
경기선행지수 ³⁾	106.1	115.5	114.4	117.1	119.9	117.6	119.1	119.9	120.8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1월 실물지표 증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로 중점조치 단행

- 11월 생산이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소비도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세. 올 들어 日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여파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34개 지역에 걸쳐 2.20일까지 중점조치를 단행(1.25일)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2	-4.5	-0.7	0.5	-0.9				
광공업생산	-2.7	-10.6	2.8	1.2	-3.7	-3.6	-5.4	1.8	7.0
민간기계수주	-0.9	-8.5	-5.3	4.6	0.7	-2.4	0.0	3.8	3.4
소매판매	0.1	-3.5	0.4	-2.1	1.2	-4.0	2.8	1.0	1.3
소비자물가	0.5	0.0	0.4	-0.6	0.4	-0.1	0.3	-0.1	0.3
실업률(%)	2.4	2.8	2.8	2.9	2.8	2.8	2.8	2.7	2.8
무역수지(10억엔)	-1,668	480	542	434	-276	-643	-630	-74	-956
경기선행지수 ¹⁾	93.8	88.6	99.7	103.4	101.7	101.2	100.2	101.5	103.0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2월 실물지표 혼조세, 4분기 성장률 4.0%, 연간 8.1% 성장

- 12월 생산 증가세가 전월에 이어 확대된 반면, 투자와 소비·수출 등 수요지표들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문간 혼조세를 반영.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020.3분기 이후 최저치인 4.0%(3.1%)로 3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인 반면에, 연간 전체 성장률은 8.1%를 기록하면서 2011년(9.6%) 이후 최고치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8.1	7.9	4.9	4.0				
산업생산	2.8	9.6	9.0	4.9	3.9	3.1	3.5	3.8	4.3
고정투자(누계기준)	2.9	4.9	12.6	7.3	4.9	7.3	6.1	5.2	4.9
소매판매	-3.9	12.5	14.1	5.1	3.5	4.4	4.9	3.9	1.7
소비자물가	2.5	0.9	1.1	0.8	1.8	0.7	1.5	2.3	1.5
수출(달러화기준)	3.6	29.9	30.6	24.2	23.0	28.0	26.9	21.7	20.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1월 실물지표 증가, 코로나 여파로 독일 경기 침체 우려

- 11월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역내 인플레이션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양상.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올 들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증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0.2	2.2	2.2				
산업생산	-1.1	-7.7	1.3	-0.2	-0.8	-1.7	-0.9	-1.3	2.2
소매판매	2.4	-1.0	-1.1	3.9	0.9	0.8	0.0	0.3	1.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1.1	1.8	2.8	3.0	3.4	4.1	4.9
무역수지(10억유로)	222.7	234.0	69.3	37.1	27.5	8.8	5.8	1.8	-1.3
경기체감지수 ¹⁾	103.7	88.2	95.3	114.3	118.1	117.6	117.8	118.6	117.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전환 & 유가 상승 지속

- 달러화는 연초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기대감 속에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짐에도 약세를 보인 이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의 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지속
- 유가는 올해 초 OPEC+의 증산 규모 유지 결정에 이어 리비아의 생산 중단과 카자흐스탄의 시위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과 UAE-예멘 간의 갈등 고조 등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상승세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1										2022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5일	
엔/달러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3.17	115.08	113.88	
달러/유로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338	1.1370	1.1301	
미 국채 (10년만기)	1.63	1.59	1.47	1.22	1.31	1.49	1.55	1.44	1.51	1.77	
WTI유	63.6	66.3	73.5	74.0	68.5	75.0	83.6	66.2	77.0	86.6	
두바이유	64.5	66.6	73.0	73.3	69.4	75.9	81.9	71.0	76.5	85.1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1.1% 성장, 11월 전산업생산 3.2% 증가

○ 4분기 실질GDP는 설비투자의 감소 지속에도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기비 1.1% 성장, 연간 전체 4.0% 성장

- 설비투자가 전분기(전기비 -2.4%)에 이어 감소세(-0.6%)를 보인 반면에,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각각 2분기와 3분기 만에 증가세(1.7%와 2.9%)를 보이고, 수출도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 증가율(4.3%)을 기록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1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	-0.9*	4.0**	6.0* (0.8*)	4.0* (0.3*)	4.1** (1.1**)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5.0*	3.6**	3.7* (3.6*)	3.3* (-0.2*)	6.3** (1.7**)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7.1*	8.3**	12.8* (1.1*)	4.2* (-2.4*)	4.1**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0.4*	-1.5**	-1.2* (-2.3*)	-1.2* (-3.5*)	-1.7** (2.9**)	-	-	-	-
전산업생산지수	-1.2	-	7.2 (0.4)	3.9 (0.5)	-	5.9 (-0.1)	1.4 (1.1)	4.8* (-1.9*)	5.3* (3.2*)
광공업생산지수	-0.4	-	12.7 (-1.2)	5.1 (0.5)	-	9.9 (-0.5)	-1.9 (-1.1)	4.5* (-2.9*)	5.9* (5.1*)
제조업생산지수	-0.3	-	13.2 (-1.2)	5.1 (0.4)	-	10.4 (-0.3)	-2.0 (-1.3)	4.6* (-2.9*)	6.2* (5.3*)
서비스업생산지수	-2.0	-	5.7 (1.7)	3.9 (0.9)	-	4.2 (-0.8)	3.4 (1.4)	5.1* (-0.4*)	5.3* (2.0*)
소매판매액지수	-0.2	-	4.4 (2.7)	5.0 (0.1)	-	3.8 (-0.8)	3.6 (2.4)	7.4* (0.1*)	4.6* (-1.9*)
설비투자지수	6.0	-	12.7 (0.7)	5.8 (-2.5)	-	12.6 (-4.4)	-5.3 (-2.1)	3.0* (-5.0*)	9.2* (10.9*)
건설기성액	-4.1	-	-5.3 (-2.4)	-6.1 (-1.8)	-	-0.1 (1.4)	-9.4 (2.3)	-0.1* (-1.2*)	-5.6* (2.4*)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3	-	116.6	117.1*	-	117.1	117.2*	117.1*	117.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8.8	-	101.2	101.3*	-	101.3	101.2*	101.0*	101.4*
선행종합지수(2015=100)	119.5	-	127.1	128.2*	-	128.2	128.2*	128.1*	128.1*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6	-	102.5	102.4*	-	102.4	102.1*	101.7*	101.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3개월 만에 큰 폭 증가(5.1%)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증가세(2.0%)를 회복하면서 전월비 3.2% 증가
 - 광공업생산이 제조업에서 5개월 만에 증가세(전월비 5.3%)를 보임에 따라 전월비 5.1%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2개월 만에 증가(2.0%)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판매의 소폭 증가(0.4%)에 내구재(-3.2%)와 준내구재(-5.7%) 판매의 동반 감소 여파로 전월비 1.9%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10.1%)와 운송장비(13.6%)의 동반 증가로 10.9%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 모든 지표들이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0.5%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 등이 하락한 반면에, 장단기금리차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 보합세

□ 물가 : 12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보합(0.0%), 전년동월비 9.0% 상승

- 12월 소비자물가는 교통(-1.9%)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음식·숙박(0.9%)과 식료품·비주류음료(0.6%), 주택·수도·전기·연료(0.3%), 오락·문화(0.4%) 등 다수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3.7%)
-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2.6%)에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서비스(0.3%)도 상승률이 더 높아진 반면, 공산품(-0.6%)에서는 2020.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전월비 보합(전년동월비 9.0%)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0.5	2.5	2.5 (0.5)	2.6 (0.8)	3.5 (1.0)	2.6 (0.2)	2.6 (0.5)	2.4 (0.4)	3.2 (0.2)	3.8 (0.5)	3.7 (0.2)
근원물가	0.7	1.8	1.4 (0.6)	1.8 (0.5)	2.6 (0.9)	1.8 (0.1)	1.9 (0.3)	2.0 (0.2)	2.8 (0.3)	2.4 (0.2)	2.7 (0.4)
생산자물가	-0.5	6.4*	6.4 (2.5)	7.4 (2.0)	9.3* (1.9*)	7.4 (1.0)	7.4 (0.5)	7.6 (0.4)	9.1 (1.0)	9.8 (0.7)	9.0* (0.0*)
근원물가	-0.1	6.0*	6.0 (2.7)	7.3 (1.9)	8.4* (1.5*)	7.0 (0.9)	7.3 (0.5)	7.5 (0.3)	8.3 (0.9)	8.7 (0.4)	8.1* (0.0*)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2월 기업대출·가계대출 감소 전환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규모 역시 2020.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21.11월 +9.1조원 → 21.12월 -2.8조원, 대기업 -1.7조원, 중소기업 -1.0조원)
 - 대기업 대출은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등의 영향으로 2021.6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중소기업대출도 시설자금 수요 지속과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2020.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 회사채 발행은 투자기관의 연말 복클로징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 지속
(21.11월 -0.2조원 → 21.12월 -0.8조원)
- CP·단기사채 역시 전월과 달리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11월 +0.7조원 → 21.12월 -3.0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축소
(21.11월 +2.3조원 → 21.12월 +0.6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은행 원화대출	44.9	-6.2	107.4	-5.6	89.3	10.3	9.1	-2.8	1,065.7
(대 기 업)	-2.4	-2.2	19.5	-5.0	7.5	2.3	2.8	-1.7	179.3
(중소기업)	47.3	-3.9	87.9	-0.6	81.8	8.0	6.4	-1.0	886.4
<개인사업자>	24.7	0.8	47.5	1.9	37.0	2.6	2.7	1.1	423.0
■회사채 순발행	15.8	-0.6	15.5	0.3	16.2	0.2	-0.2	-0.8	..
■CP·단기사채 순발행	0.3	-5.6	2.3	-0.7	4.1	-1.0	0.7	-3.0	32.7
■주식발행	6.3	0.7	11.0	3.0	28.9	1.1	2.3	0.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기타대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7개월 만에 감소
(21.11월 +2.9조원 → 21.12월 -0.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 관련 자금수요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거래 둔화와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11월 +2.4조원 → 21.12월 +2.0조원)
- 기타대출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지속,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감소
(21.11월 +0.5조원 → 21.11월 -2.2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은행 가계대출	60.7	7.2	100.6	6.7	71.8	5.2	2.9	-0.2	1,060.7
■ 주택담보대출	45.7	5.6	68.3	6.3	56.9	4.7	2.4	2.0	778.8
■ 기타대출	15.1	1.6	32.4	0.4	14.7	0.5	0.5	-2.2	280.7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월 중순(1.11~1.25일) 금리 & 원/달러 동반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연초 미 국채금리 상승세와 한은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상 결정(1.14일, 1.25%로 +25bp)과 정부의 추경 예산(14조원 규모) 추진, 연준의 1월 FOMC 회의(25~26일) 경계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
(1.11일 2.04% → 1.25일 2.17%, +0.13%p, 2018.6.18일 이후 최고치)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불안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약세와 함께 상승세
(1.11일 1,194.8원 → 1.25일 1,198.6원, +3.8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0				2021				2022
	3/4	4/4	1/4	2/4	3/4	10월	11월	12월	1.25일
국고채(3년)	0.85	0.98	1.13	1.45	1.59	2.10	1.80	1.80	2.17
회사채(3년, AA-)	2.19	2.21	2.06	1.97	2.05	2.57	2.37	2.42	2.73
CD(91일)	0.63	0.66	0.75	0.68	1.04	1.12	1.26	1.29	1.48
CP(91일)	1.11	1.09	1.00	0.97	1.18	1.24	1.49	1.56	1.64
원/달러	1,169.5	1,086.3	1,131.8	1,126.1	1,184.0	1,168.6	1,187.9	1,188.8	1,198.6
원/100엔	1,112.1	1,054.3	1,027.3	1,022.1	1,058.2	1,031.7	1,049.6	1,030.2	1,047.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6.2%, 전월비 +5.3%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전년동월비 -3.5%)와 전자부품(-8.8%)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반도체(33.7%)를 비롯해서 화학제품(7.0%)과 기계장비(5.8%), 섬유제품(5.5%)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6.2%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0.1%)에서 증가세가 전월(21.6%)보다 축소된 반면에, 중공업(7.0%)은 확대되고, 경공업(2.5%)은 증가세로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화학제품(-0.3%)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4.5%)를 비롯해 자동차(11.3%), 전자부품(8.1%), 섬유제품(8.1%), 기계장비(5.7%), 1차금속(2.2%)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5.3%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8)는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하락세가 이어진 데 반해, 반도체와 화학제품, 자동차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0.6%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는 0.1%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월중 115.2%로 전월보다 6.1%p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가 증가세로 전환(-3.9% → 1.8%,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된 반면, 재고 증가 폭이 확대(7.8% → 8.9%)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1%로 전월과 달리 4.0%p 상승 전환

□ 서비스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5.3%, 전월비 +2.0%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4.2%)를 비롯해 숙박·음식점(14.3%)과 정보통신(8.5%), 전문·과학·기술서비스(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5.2%) 등 다수 업종에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5.3%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도 도소매(0.8%)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3.1%)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운수·창고(1.8%), 숙박·음식점(5.6%), 정보통신(3.0%) 등에서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데 힘입어 증가세(2.0%)로 전환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8.3%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3.5%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09.8	113.7	111.8	110.0	113.9	118.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4.4	12.7	5.1	-1.9	4.5	5.9	5.1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09.1	114.4	112.1	110.7	114.6	118.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4.4	13.2	5.1	-2.0	4.6	6.2	5.3
섬 유	135.0	-5.9	-10.5	-4.5	25.0	4.6	-7.5	0.2	5.5	8.1
화 학	883.8	-1.3	-3.0	2.8	15.7	7.8	2.2	2.0	7.0	-0.3
철 강	454.3	-2.2	-6.3	-1.9	13.3	12.0	2.7	2.4	0.7	1.3
반도체	1,285.6	11.7	22.7	21.9	27.2	33.9	30.6	37.6	33.7	4.5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3.2	8.8	-6.5	-19.3	-12.0	2.6	13.0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8.7	41.7	18.7	12.3	9.1	9.0	11.8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17.0	31.7	14.8	2.9	6.1	16.4	12.9
기계, 장비	819.2	-5.9	3.6	9.4	18.4	6.8	1.5	7.5	5.8	5.7
자동차	981.6	-0.5	-10.0	11.2	22.5	-8.7	-24.2	-13.3	-3.5	11.3
조 선	206.3	17.6	8.6	-15.6	-17.6	-22.7	-24.5	-13.7	-12.1	4.7
- 중 공 업	-	0.6	0.6	5.5	14.4	6.6	-0.7	5.5	7.0	5.1
- 경 공 업	-	-0.6	-4.0	-0.3	7.4	-1.7	-8.2	-0.1	2.5	6.8
- 제조업ICT	-	4.8	11.9	14.0	19.9	20.9	17.3	21.6	20.1	1.0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05.9	110.8	110.0	110.5	111.8	114.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2.2	5.7	3.9	3.4	5.1	5.3	2.0
도소매	211.3	-0.4	-2.6	3.1	5.2	3.7	0.3	3.8	4.2	0.8
운수및창고	90.3	0.0	-14.2	-2.4	11.0	6.9	7.1	10.5	9.4	1.8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13.1	1.5	-1.3	11.3	7.4	14.3	5.6
정보통신	79.9	3.6	1.5	2.0	3.9	6.9	5.7	7.1	8.5	3.0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5.0	9.7	6.3	4.6	7.0	4.6	3.0
부동산	31.8	0.5	5.5	-2.6	5.7	0.4	1.2	2.8	1.0	-0.1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2.1	4.2	0.2	0.2	1.7	3.2	3.1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3.8	5.6	2.9	2.3	4.4	5.2	1.7
교 육	106.0	-0.4	-4.7	0.2	3.0	1.8	2.2	1.5	2.0	1.4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8	3.1	4.6	4.3	3.4	3.9	0.1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18.0	20.6	7.2	14.9	13.8	18.5	8.3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1.8	0.3	-0.4	-0.2	5.1	5.2	-0.4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0.5	6.1	3.8	-4.5	-4.8	0.5	2.8
- ICT서비스업	-	3.5	4.9	4.3	4.4	6.5	4.1	8.0	8.3	3.5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1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9% 증가

- 12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만에 상승(2.0% → 2.9%, 2014.3월 이후 최고치)
 -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보다 둔화(1.2% → 0.8%)
 - 농림·어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율이 전월보다 더 높아지고(2.1% → 2.7%),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추가적으로 확대(2.2% → 3.4%)
 - 건설업의 취업자 수도 전월보다 확대(0.8% → 1.9%)된 데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감소폭 역시 현저하게 축소(-3.7% → -0.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취업자 감소세(-6.3% → -5.0%)가 이어지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11.6% → 7.6%)된 영향에도 교육서비스(5.9% → 6.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7.4% → 7.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8% → 5.0%)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된 데 힘입어 전체 증가율이 더욱 상승(3.8% → 4.3%)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8%로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산 업	26,904	27,273	27,467	27,645	27,611	27,603	27,683	27,741	27,795	27,298
전년동기비	-0.8	1.4	2.3	2.1	2.4	1.9	2.5	2.4	2.0	2.9
농림·어업	3.6	0.9	0.2	1.6	2.0	2.4	1.4	1.3	2.1	2.7
제 조 업	-1.2	-0.2	0.1	-0.8	0.6	-1.7	-0.8	-0.3	1.2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0	1.7	2.9	2.8	2.9	2.6	3.2	3.0	2.2	3.4
건 설 업	-0.2	3.7	7.0	4.5	1.7	6.1	2.7	2.5	0.8	1.9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3	-3.5	-2.4	-2.6	-1.9	-2.7	-1.5	-1.7	-3.7	-0.2
전기·운수·통신·금융	0.7	5.6	5.2	6.9	8.3	6.4	8.3	9.0	8.5	7.3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0.9	3.0	4.3	4.1	4.0	3.7	4.3	3.9	3.8	4.3
실업률 (계절조정, %)	4.0	3.6	3.7	3.0	3.4	2.8	3.0	3.2	3.1	3.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2월 수출 18.3% 증가, 수입 37.1% 증가, 무역수지 -4.5억 달러

○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3%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37.1% 증가한 612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상당수의 주력 품목들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국·미국·EU·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2개월 연속 600억 달러를 돌파

- 수입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1차산품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3.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85.5%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0.3%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은 86.2% 증가한 약 71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	5,125 (-5.5)	6,444 (25.7)	1,567 (42.1)	1,645 (26.5)	1,767 (24.6)	532 (34.7)	559 (16.9)	557 (24.2)	604 (31.9)	607 (18.3)
수입	4,676 (-7.1)	6,150 (31.5)	1,492 (37.7)	1,569 (37.5)	1,724 (39.4)	516 (44.0)	516 (31.1)	538 (37.7)	574 (43.6)	612 (37.1)
무역수지	449	294	75	76	44	16	43	18	30	-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13대 품목중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8개 품목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 반도체 : 높은 수준의 D램 가격 유지와 모바일 수요 증가, 파운드리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18개월 연속 증가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였으나, 국내 공장들의 가동률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신규 친환경차 모델이 EU 등 주

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

- **자동차부품**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EU·중국 등 해외 현지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수출이 소폭 감소
- **선박류** : 물동량 증가와 친환경 정책 강화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주-인도간 시차와 전년동월 선박 수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다시 감소 전환
- **디스플레이** : LCD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이 기술 우위에 있는 OLED가 TV와 모바일용 하이엔드 제품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국내 기업들의 신제품 판매가 글로벌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등지로의 부품 수출도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석탄 가격에 따른 단가 상승 요인과 전방산업들(건설·기계 등)의 견조한 수요 등에 힘입어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
- **섬유** : 한류 확산에 따른 의류제품 수요 확대와 글로벌 의류 수요 회복에 따른 섬유제품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
- **석유제품** : 주요국들의 비축유 방출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회복세와 함께 전년대비 높은 수출단가가 유지되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
- **석유화학** : 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전방산업의 경기 회복으로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중국·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
- **일반기계** : 공작기계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책 실행 등에 힘입어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의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

- 가전 :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 선호에 연말 소비 특수가 이어지고, 미국·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
- 컴퓨터 : 노트북·PC 등 비대면 수요가 둔화된 반면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의해 서버용 SSD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동차	-13.1	24.2	74.8	6.5	4.9	16.8	-6.1	-4.7	3.3	17.3
자동차부품	-17.3	22.2	123.1	14.8	-1.4	22.1	-5.1	-1.2	-2.2	-1.0
선박류	-2.0	16.4	11.9	-1.4	22.9	38.9	-40.4	6.4	237.7	-49.0
일반기계	-8.9	10.8	21.2	15.6	9.9	23.4	7.7	12.6	11.6	6.1
철 강	-14.5	37.0	50.4	45.1	47.7	53.4	41.6	48.5	45.7	48.9
석유화학	-16.4	54.8	80.3	64.1	54.1	81.6	52.3	69.2	62.9	34.2
석유제품	-40.6	57.7	112.6	71.6	113.1	54.5	84.8	148.1	121.7	79.4
섬 유	-13.3	14.0	46.0	9.9	16.8	19.0	-3.8	21.7	16.9	12.6
가 전	0.7	24.0	66.5	11.7	15.3	12.3	-4.1	13.7	20.9	11.6
무선통신기기	-6.4	22.9	38.5	25.7	12.1	62.0	19.6	15.5	16.4	4.8
컴퓨터	57.2	25.2	8.9	34.0	56.5	26.1	49.4	52.6	73.5	44.7
반도체	5.6	29.0	29.7	36.3	34.6	42.6	28.2	28.8	40.1	35.1
디스플레이	-12.2	18.9	36.0	25.2	5.8	23.7	17.3	5.3	10.4	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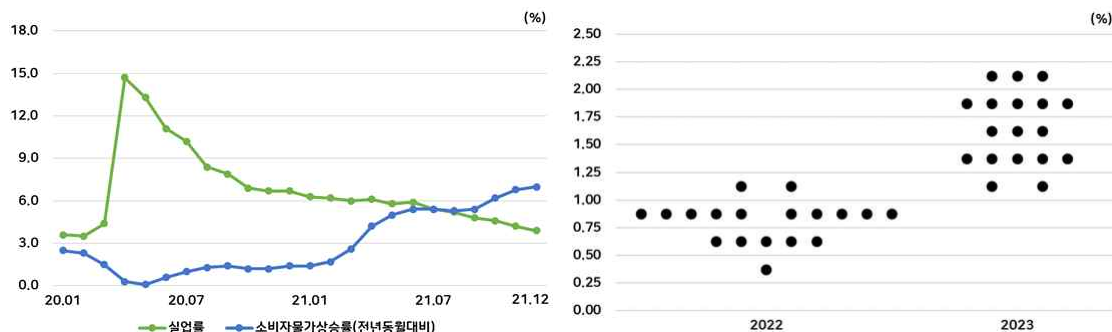
○ Asymmetric recovery(비대칭 회복) :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개선

- 세계경제의 회복 기조가 지속될 것이나, 코로나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로 안착되기는 어렵고, 선진국보다 신흥·개도국의 경기 회복세가 느릴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1년 5.9% → 2022년 4.9%로 하락이 예상(IMF)

○ Forward guidance(사전적 정책방향) : 美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

- 2022년 2분기중 금리 인상 조건(물가상승률 2% 이상 유지, 완전고용 근접)이 충족되면서, 연방기금금리가 연말 1.0% 내외까지 높아질 전망

< 美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 < FOMC 연방기금금리 예측 점도표 >



자료: BLS(미 노동통계부).

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자료: FOMC Meeting, Projection Materials.

(2021.12.15일)

○ Twin deficit(쌍둥이 적자) :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건전성이 취약한 상당수의 신흥·개도국들이 신용경색과 디폴트 등의 문제에 직면 가능

○ Endgame(종반전) :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

- 오미크론發 글로벌 대유행으로 주요국들의 방역 강화 및 봉쇄 조치 가능성도 있으나, 점차 개선되면서 경제는 다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

○ Rhino(코뿔소) : 차이나 리스크의 심화

- 중국의 구조적 문제점인 3마리 회색코뿔소(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이슈가 부상하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리스크가 부상

□ 국내경제

○ Taylor's rule(테일러 준칙) :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

- 지난 2021년중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2022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연말 기준금리는 2.0% 내외까지 상승할 전망

○ Inertia effect(관성효과) : 보복 소비 기대와 회복 지연 우려의 병존

- 코로나 위기의 충격 정도가 완화되면서 이전 소비 규모로의 회귀 가능성도 있지만,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發 저축 확대 동기도 상존
-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후자의 가능성을 뒷받침

* 2019년 3분기 72.9% → 2020년 3분기 68.9% → 2021년 3분기 67.4%

○ Mild recession(연착륙) : 국내경기 상승세의 둔화

- 2022년 상반기까지는 국내경기 회복세가 일시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부진의 정도는 국내 방역 상황과 수출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좌우
- 동행지수순환변동치로 보면, 지난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2021년 7월부터는 정체된 모습으로 경기 회복력의 약화를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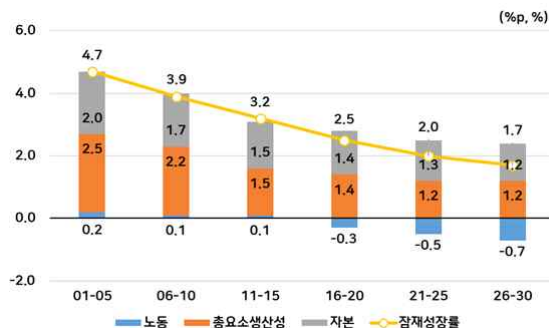
○ Economic misery index(경제고통지수) :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

- 경제고통지수(실업률+소비자물가상승률)가 2021년에 약 6p 내외(최근 10년 내 최고치)로 추정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

○ Secular stagnation(장기침체) :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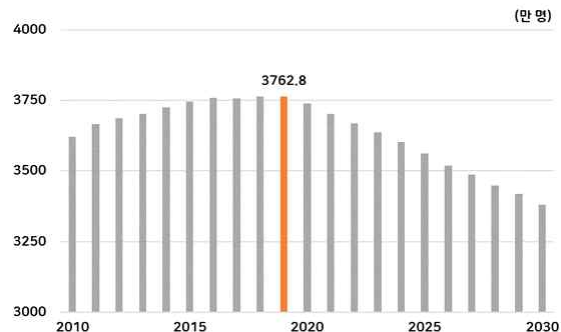
- 코로나 경제충격 이후,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잠재성장률의 급락
- 이는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외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의 감속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시키는 요인

<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24)	(1.25)	(1.26)	(1.27)	(1.28)
	 1월 소비자신뢰지수  연준 FOMC(126일)  21.4분기 실질GDP (속 보 치)	 11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1월 소비자동향조사	 21.4분기 실질GDP (예 비 치)  12월 내구재수주(잠)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2월 무역수지(수)  1월 경제체감지수  12월 개인소비  12월 산업활동동향
(1.31)	(2.1)	(2.2)	(2.3)	(2.4)
 12월 산업생산(잠)  12월 소매판매(잠)	 12월 실 업 률  12월 실 업 률  1월 ISM 제조업지수  1월 수출입통계	 1월 소비자물가(예)	 12월 소매 판매  ECB 통화정책회의  1월 ISM 서비스업지수	 1월 고용보고서  1월 소비자물가
(2.7)	(2.8)	(2.9)	(2.10)	(2.11)
 12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12월 무역수지		 1월 소비자물가	
(2.14)	(2.15)	(2.16)	(2.17)	(2.18)
 12월 산업생산	 21.4분기 실질GDP (잠 정 치)  12월 산업생산(수)  12월 소매판매(수)  12월 수출입통계	 1월 산업생산  1월 소매 판매  1월 소비자물가  1월 고용동향	 1월 무역수지(잠)  12월 기계수주	 1월 소비자물가  1월 경기선행지수
(2.21)	(2.22)	(2.23)	(2.24)	(2.25)
	 2월 소비자동향조사	 1월 소비자물가(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21.4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월 생산자물가  금융통화위원회	 1월 무역수지(수)  12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2월 경제체감지수  1월 내구재수주(잠)  1월 개인소비